

경제

건설사 무더기 제재 업계 '패닉'

광주·전남 16곳 대부분 6개월 관급 입찰 못해 정부 재정 조기집행 기간 맞물려 피해 클 듯 지역 건설사들 소송 통해 시기 늦추기 움직임

사상 초유의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 건설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광주·전남지역 16개 중견 건설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69개사가 연관돼 있어 당분간 공공입찰 시장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건설사들의 경우 민간공사보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아 부정당업자 무더기 제재의 충격이 훨씬 크다. 이로 인한 지역 대형 공공공사의 차질도 우려된다. 담당 나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지만 착공된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2곳 뿐이다. 나머지 13개 기관의 청사 건립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낙찰자가 결정된 전력거래소가 해당 건설사와 계약할 지 주목된다. 전력거래소 청사 건립은 한양건설이 낙찰했다. 하지만 한양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계약법령 시행령에 따르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입찰 공고가 난 한전KPS와 한전KDN,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주 경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식품연구원 등 나머지 9곳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줄줄이 청사 건립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나주 혁신도시 청사 건립은 지역의

무공통도급제가 적용돼 광주·전남 건설사 40%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역 중견건설사 16곳이 무더기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이 금지됨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예상된다. 그동안 이들 업체가 지역 공공공사를 독식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후폭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전남 건설사들은 대부분 6개월간 입찰 제한을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70% 이상을 조기집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실제 조달청은 올해 전체 시설공사 목표 20조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14조 9100억원을 집행해 74.5%의 조기 집행을 보였다.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전체 4500억원 중 75.2%인 305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전남 지역 지자체가 시행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실적도 보면 지난 6월22일 현재 전체 집행 목표액은 3조4199억원이다. 이 가운데 75%인 2조5659억원이 집행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조기집행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들 업체의 경영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일부 해당 건설사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제재 시기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철회된 건설경기로 수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순환성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부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재가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해 시기를 늦추려는 건설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장 직거래장터 열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김장시장 특별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장터에서는 배추와 찮갈류, 마늘, 건고추, 쪽파 등 김장용 양념류를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11월 소비자물가 4.5% 상승

전남은 4.4% 올라. 이는 전달 광주와 전남지역이 각각 3.7%와 3.6%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4% 상승으로 돌아왔다. 과일과 우유, 공공요금, 공업제품 등은 오르고 채소와 생선은 떨어졌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201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전남지역은 105.2로 4.4%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4%대로 돌아왔다. 과일과 우유, 공공요금, 공업제품 등은 오르고 채소와 생선은 떨어졌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201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전남지역은 105.2로 4.4% 각각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업체 체감경기 여전히 바닥

실사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중견 건설업체의 경기실사지수(CBSI)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10월보다 0.6포인트 오른 66.0을 기록했다. 지난달 CBSI가 10월보다 소폭 오르는 것은 했지만 여전히 70선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견건설업체 지수는 64.0으로 전달 대비 4.0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대형업체 지수는 10월과 동일한 84.6, 중소기업 지수가 10월보다 6.4포인트 오른 46.4를 각각 기록했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홍일 건설업 연구위원은 "산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민간 건설경기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공공공사 발주도 늘어나지 않아 CBSI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력과 자재수급 부분의 CBSI는 각각 97.1, 101.6으로 양호한 모습이지만 자재비 지수는 75.3에 그쳐 원자재 가격 인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12월 CBSI 전망치는 지난 달보다 4.3포인트 오른 70.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생산 대우일렉 클라세 '양문형 냉장고'

세계 최초 저탄소 상품 인증. 광주에서 생산한 대우일렉의 클라세 '양문형 냉장고'가 세계 최초로 저탄소 상품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제도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한 제품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한해 재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클라세 냉장고는 냉장고 부문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클라세 양문형 냉장고는 원재료 변경 및 사용량 절감, 고효율 인버터 압축기 채용, 친환경 냉매제 적용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했다. 기존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소비전력을 24%와 17.2% 각각 줄였다. 이는 매년 어린 소나무 23그루씩을 심는 것과 맞먹고, 최대 72만 원 (매월 5000kwh 이상 10년 사용)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의 '햇반'과 풀무원의 '유기농두부', 케이워터 '청주정수장 수돗물', 에경산업 '스파크', 웅진코웨이 '냉온정수기', 삼성코닝정밀소재 'TFT-LCD 기판유리', 리바트 '레이나 장물', LG전자 '가정용 드럼세탁기' 등도 저탄소 상품 인증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11월 24만1290대 판매 ... 역대 최대

기아자동차는 1일 지난달 국내에서 총 24만1290대의 차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보다 8.5% 늘어난 수치다. 월별 판매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국내 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11.4% 줄어든 3만9031대를 기록했다. 다량히 해외에서 13.4% 늘어난 20만2259대를 판매했다. 월별 판매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국내에서는 노비(8042대)와 K5(7162대)가 판매를 이끌었다. 스포티지R(3849대)과 쏘렌토R(3125대)도 많이 팔렸다. K5하이브리드는 5~10월 3986대가 판매된 데 이어 11월에도 534대가 팔렸다. 해외에서는 신형 프라이드와 포르테, 스포티지R, K5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신형 프라이드는 3만5718대가 팔렸고 포르테와 스포티지R도 각각 2만대 이상 판매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판매 하락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출시된 박스카 레이의 판촉활동을 강화해 국내 침체에 대응하고 내수 판매 감소분을 해외판매로 돌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916.18 (+68.67)
코스닥지수 ▲ 496.33 (+3.52)
금리 (국고채 3년) 3.38% (0.00)
원·달러 환율 ▼ 1126.10원 (-16.90)
※수치는 전달 증가 기준

바스프, 여수에 특수 플라스틱 공장 신설

연간 6000t 생산 규모.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는 1일 여수공장에 고기능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울트라손(Ultrason) 폴리메트리스(PESE)를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밝혔다. 공장은 연간 6000t 생산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초 착공해 2014년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약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열경량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울트라손은 220도 이상의 열에서도 견딜 수 있어 전자, 자동차, 항공우주산업에 널리 사용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6-중-9062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건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걸립니다. 이런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매표기 센터가) 경희한의원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중성이 심한 경우는 대장치료를 통해 신체중성을 우선 개선 시켜줍니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 해야 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시라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바탕을, 울허 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 심담기허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림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위양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입니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합니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기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변질이 생기며 간혹 몽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당허겁(心動虛怯) 몹시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형(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증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금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운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아지는 인체의 밤을 순환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